운문삼전어 안다면 방장 자격 있음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불기섬호수학심(不起纖毫修學心)하면
무상광중상자재(無相光中常自在)라.
무한낙화수류거(無限落花隨流去)하고
석양춘색만강호(夕陽春色滿江湖)로다.

털끝만큼이라도 닦아 배울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相)이 없는 빛 가운데 항상 자재(自在)함이라.
무한한 낙화(落花)는 흐름을 따라가고
해 저문 봄빛이 강호(江湖)에 가득하도다.

금일(今日)은 동안거 해제일(解制日)이라. 산문(山門)을 폐쇄(閉鎖)하고 결제(結制)하여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달이 되고 어느 듯 구순(九旬)이 지나갔음이라.

이렇듯 시간이란 신속(迅速)함이라. 돌이켜보매 인생(人生) 또한 이와 같아서 나태(懶怠)하고 방일(放逸)해서는 청춘(靑春)이 일순간에 노인(老人)이 되어 있음이라. 해제일이 되었다고 화두(話頭)를 놓아 버리고 정신없이 산천(山川)을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虛費)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할 것이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하여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라.

중국의 당나라시대는 선가오종(禪家五宗)이 성립하여 선(禪)의 황금시대를 구가(謳歌)하던 때였다. 운문종(雲門宗)의 개창조(開創祖)인 운문선사(雲門禪師)는 동진(童眞)으로 출가하여 위법망구의 신심과 정진으로 일관하였다. 〈중략〉

당시에 또 영수(靈樹)선사라는 도인이 계셔서 수백 명 대중을 거느리고 참선지도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수좌(首座)자리를 비워놓고 어느 스님도 추대하지 않으셨다.

"수좌 스님은 언제 오십니까?"하고 대중이 물으면, "이제 태어났다. 태어나서 소를 잘 먹이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 수도(修道)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만 20년간 계속 해오셨다.

그러다 근 20년이 지나서 하루는, "오늘은 수좌 스님이 올 것이니 대중은 맞을 준비를 하라."하고 이르셨다.



조실 스님의 명(命)이 떨어지자, 대중이 일시에 온 도량을 청소하고는 가사 장삼을 수(垂)하고 산문(山門)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웬 스님 한 분이 산문을 들어오셨다. 운문 선사께서 제방(諸方)을 행각(行脚)하시다가 영수 선사 회상을 찾아오셨던 것이다.

영수 선사께서, "수좌 자리에 모셔라!"하셔서, 대중들이 운문 선사를 수좌 자리에 모셨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칼을 가지고 와서 운문 선사의 정수리에 대고는, "이 때를 당해 어떠합니까?"하고 대번에 시험을 하였다.

이에 운문 선사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피가 범천궁(梵天宮)까지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시험을 던졌던 스님이 칼을 거두고 큰 절을 하였다.

그 후 운문선사의 법이 널리 펴져서 선사의 법제자가 20명에 이르니, 운문종파를 이루게 되고 운문선사의 선법(禪法)이 중국천하를 풍미(風靡)하였다.

세월이 흘러 운문(雲門) 선사께서 세연(世緣)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첫째,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둘째,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셋째,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검인가?
이 물음에 여러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했지만, 그 중에서 파릉(巴陵)스님이 답하기를,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은쟁반 위에 흰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어떠한 것이 진리의 보검인가?
"산호(珊瑚)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운문 선사께서 이 답처(答處)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열반(涅槃)에 든 후, 너희들은 기일(忌日)에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다오." 라고 하셨다.

요즈음의 선지식들이 당기(當機)에 다다라 주저하게 되는 것은 견처(見處)도, 살림살이도 다 고인(古人)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무변대도(無邊大道)의 불법진리(佛法眞理)를 바로 알려면 고인들의 법문 하나하나를 다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이 운문삼전어 (雲門三轉語) 법문을 안다면 한 산중(山中)의 방장(方丈)이 될 자격이 있음이라.

필경(畢竟)에 진리의 일구(一句)는 어떠한 것이냐?

일곡양곡무인회(一曲兩曲無人會)
무한운산벽층층(無限雲山碧層層)
진리의 곡조를 한곡 두곡 읊어야 아는 이 없고
한없는 구름산만 겹겹이 푸르도다.

하늘은 푸르고 자장매는 붉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獨坐喩然一室空하니
更無南北與東西라
雖然不借陽和力이면
那得梅花一樣紅이리오
무심히 텅 빈 방에 홀로 앉으니
다시 남북과 동서가 없네
비록 그러하나
양기의 온화한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찌 매화꽃이 한 모양으로 붉으리!



총림대중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해제를 하게 되었다. 세상과의 모든 인연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정진해서 인천의 스승이요 삼계도사로 그 안목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로 산문을 나서게 되었으니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오르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될 것이다. 이는 외호대중의 공덕이요, 최상승 수행법을 만난 선근이로다.

혹 영산의 소식을 묻거든 지난 겨울의 추위로 무풍한송로의 노송은 더욱 푸르고, 영각 앞 자장매의 향기는 더욱 그윽하다 할 만하리라.

산문을 나서는 납자의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맞이하는 산문 밖 인연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劫外靈山無影樹가
枝枝花月十洲紅이라
玉爐烹飮醍醐茶하고
活舞威音那畔春이로다

겁외 영산의 무영수가
가지마다 꽃과 달이요, 십주에 봄이라네
옥화로에 차를 다려 제호로 마시니
위음이 춤추는 봄언덕이네.

생사해탈 결제, 확철대오 해제를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이 주장자라는 한 물건이 시방삼세(十方三世)와 제불조사(諸佛祖師)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일월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대중(大衆)은 아시겠습니까?

누가 시방삼세(十方三世)를 다시 건설하고 제불조사(諸佛祖師)를 다시 모신 뒤 일월을 다시 밝히겠습니까?

이 산승(산승)이 이를 터이니 대중(大衆)이 점검해 보십시오.



차물종하래 고금함구해(此物從何來 古今含九垓)
입야일물무 와야만반현(立也一物無 臥也萬般現)
본시무거래 여하유립와(本是無去來 如何有立臥)
풍취남강매 설타북동천(風吹南岡梅 雪打北崠泉)

이 물건은 어디로부터 왔는고
예와 지금을 머금어 하늘 밖이로다.
일어서면 한 물건도 없고
누우면 모든 것을 다 나타낸다.
본래 오고 감이 없거니
어찌 일어나고 눕고가 있겠는가.
바람은 남쪽 언덕 매화에 불고 눈발은 북쪽 능선 샘물을 두드리네.

이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장자라는 물건은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는 물건입니다.

위음왕불 이래로 이 날 이때까지 써 왔으나 다 쓰지 못하여 처음 같고 시방세계가 다 무너져 흔적이 없어도 오롯하고 의젓하여 오히려 새롭습니다.

오직 이 산승은 생각 생각 그침이 없이 무릎 아래를 되돌아 비쳐 볼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그 추위의 바람은 남쪽 언덕에 언젠가 필 매화나무에 불고 있고 눈발은 선방 뒷산 아래 옛 샘물의 수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산승의 삼동결제 석 달 동안의 살림살이가 이 뿐입니다. 시회대중들 여러분은 잘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해제대중도 삼동결제 동안 두문불출하고 선방에 들어 앉아 생사를 걸어두고 참선하였지요.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에게 다 같이 스스로 알게 모르게 향상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결제는 생사해탈을 마음먹을 때 이미 결제를 했고 우리의 진정한 해제는 확철대오의 그 날이 해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은 이 몸뚱이 나고 죽는 문제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근본을 얻음으로써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실증에 도달하려 정진하였습니다.

도달한 분은 도달했을 때 자연히 오도송을 했고 열반함에 열반송을 읊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중노릇을 했고 무슨 벼슬을 하고는 수행자의 올바른 이력은 아닙니다. 이는 이 몸뚱이 살아온 이력은 될지언정 깨달음의 이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이력은 오도송과 열반송이 있을 뿐입니다. 수행자에 따라 오도를 했을지라도 오도와 열반의 경지에 아무 말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비록 동안거가 해제되지만, 그 향상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확연한 조사관의 타파가 있을 때까지 해제 결제에 구애받지 말고 정진 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전부가 이 시간이요, 전부가 이 허공이로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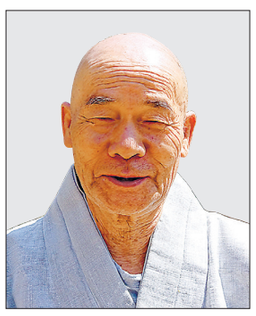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번져오고 얼었던 산천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법계에는 한 점의 티끌도 없네. 마음 달이 둥글게 밝아 이 광명은 깨닫기 이전에 도리어 비추고 있었네.

즉하에 바로 분명케 하라. 덕숭산 사십년에 무엇을 위함인가! 보석이 귀하나 눈에 떨어지면 병이 된다. - 만공 스님

첫 새벽 깊은 하늘에 총총한 저 장엄한 별무리 한 마음, 같은 관심이라 언제나 다정합니다. 인당수 넓은 모래 벌에 발 디딜 틈 없이 살고 있는 생명의 군단들 모두가 한 숨길입니다. 살아온 한 평생이 한 생각입니다. 이 절묘한 아름다움, 절절이 넘치는 신비, 놓칠 수 없는 새벽의 여명, 마하반야바라밀이요. 알 수 없는 是甚麽, 이~뭘까?

갖가지 변화의 한 평생이 대방광불화엄경인가? 요지는 응관입니다. 應觀法界性 느끼는 당체, 응하는 자리, 보고 듣는 이 물건, 공도 제로도 영도 아닌 이글이글 돌아가는 언제나 설레는 이 물건, 알 수 없는 의심덩어리, 가깝고도 가까운 그립고 반가운 억천만겁을 함께 한 신비의 이 자체, 깊은 잠에서 눈을 뜨면 是大神呪, 청소하다 돌아보면 是大明呪, 엎어치고 젖혀 뒤집어 소용돌이치는 우람한 파도도 바다로 녹아져, 물로 고요해져 언제나 제자리 만고청청. 따뜻한 가슴에 녹아진 하늘땅, 頭頭가 毘盧요, 物物이 華藏이로다.



상머슴일수밖에 없으니 내 책임이라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시봉일 뿐이니 도움이 되어야 할 일 뿐이니 세세생생 행자下心으로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자유로워진다면 시간 없는 안거요, 텅텅 비어 바쁠 것이 없으니 장소 없는 선불장입니다. 전부가 이 시간이요, 전부가 이 허공이로다. 밤마다 부처님 안고자고 아침마다 도리어 함께 일어난다.

부처님 간 곳을 알고 싶은가? 다만 말소리가 이것이다.

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
欲識佛去處
只這語聲是

부처님 간 곳을 알고 싶은가? 답을 하되, 혹은 말소리가 이것이다.

혹은 語者是 혹은 不識不識

여기에 바다 같은 답이 있고 접시 같은 답이 있고 아닌 답이 있습니다. 이 공부로 대비해 볼 일입니다.

해제는 만행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바람입니다. 모든 소리 모든 경계 모든 행동이 끝파도 바람입니다. 일체 바람이 이뭘까로 돌아와 계향이요, 정향이요, 해탈향이요, 해탈지견향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바람,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바람,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해제만행은 일체 중생을 요익케 하는 향기바람입니다. 이 공부에 탄력을 주는 바람입니다. 적적한 대적광전에 산하대지 바람이 백억 석가모니불을 화현시킵니다.

가볍게 미소 띠우며 걸음걸음 복을 짓네. 걸음걸음 끝파도요, 大神呪로다. 蠢動含靈登彼岸 벌레 한 마리도 이 품속입니다. 世世常行 菩薩道 세세생생 보살행을 축원합니다. 究竟圓成薩婆若 구경이요, 원성이요, 이 자체여! 摩訶般若婆羅蜜 이~뭘까, 이놈이 뭘까? 보석이 귀하나 눈에는 병이다. 무슨 말이냐?

해제도 결제처럼 한결같아야 하니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송나라 밀암함걸(密庵咸傑)선사께서 안거를 마친 해제 일에 법좌에 올랐습니다.

"90일 전에는 노끈도 없었는데 스스로 묶여 있다가 90일 이후에는 다리가 파리해지면서 짚신이 헐렁해졌다. 그리하여 비로소 해제 이후에 하늘이 사사롭게 만물을 덮지 않고, 땅은 사사롭게 만물을 싣는 일이 없으며 바람은 나뭇가지를 울리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깨뜨리지 않게 된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다. 결제대중이 안거를 회향하면서 태평스런 해제시절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설사 동쪽으로 가다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대로 서쪽으로 오다가 뒹굴면 뒹구는 대로 모든 것을 무심(無心)히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할(喝)을 하시더니 법상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어느덧 삼동안거가 지나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동안거 동안 산중의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총림의 대중들이 애써 수행정진해서 어느새 해제에 이르렀습니다. 흘러만 가는 시간에 미련을 두거나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제 기간에도



우리 본성의 바탕에서 힘 따라 애써 정진하고 생활할 때 우리는 여러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가 순일할 것입니다. 무심의 경지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해제 길에 들어서면 초목과 산천은 거듭거듭 본분의 소식을 드러낼 것이며 또 객승으로 잠시 머무는 암자에서 종과 북이 울리는 것이 때로는 해탈의 소리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고 머무를 때 정해진 장소가 따로 없으며 또 숨고 드러남이 자유자재한지라 설사 범부라고 할지라도 범부가 아닌 것입니다.

광교 성(廣敎 省)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길이 끊어지고 안개먼지가 낄 때는 어떻습니까?"

이에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눈(眼)이 없는 사람은 등불을 빌리지 않는다."

설사 땅에서 둘러 쓴 먼지라고 할지라도 그 먼지는 하늘까지 뽀얗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생각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무심은 목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고(天鼓)가 비록 무심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미묘한 법음을 내어 중생을 교화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마치 여의주가 비록 무심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로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둔한 새는 바람을 거스르며 날아갑니다. 무심을 잘못 알아듣고서 혹여 있는 것을 없다고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의 바탕에서 애써 정진할 때 진정한 무심공부인(無心工夫人)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복덕이 매우 깊어 큰 바다와 같을 것이며 지혜는 막힘이 없기 때문에 허공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또 신통변화가 세간에 충만할 것입니다.

흑마답설원부적(黑馬踏雪元不跡)이요.

백어음수료무성(白魚飮水了無聲)이로다.

검은 말이 흰 눈을 밟더라도 본래 검은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고

뱅어(흰 물고기)는 물을 먹어도 마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구나.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